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이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강리리¹, 이진아^{2*}

¹삼육보건대학 간호과, ²삼육보건대학 보건사회복지과

The impact of recognition of spouse's conflict-coping behavior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Lily Kang¹ and Jinah Lee^{2*}

¹Dept. of Nursing, SahnYook Health University

²Dep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SahnYook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이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초기 부부들의 부부관계증진 교육과 프로그램 증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시에 있는 S대학 학생들의 가족과 이웃 중 결혼 5년 이내 부부 17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철회형의 갈등대처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신체형 및 철회형의 갈등대처행동과 우울에 차이가 있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언어형의 갈등대처행동과 우울에 차이가 있었다. 부부의 대화 시간에 따라 자존감과 우울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존감은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to examine the impact of spouse's conflict-coping behavior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couples married within 5 years, in order to provide data for edu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of improving their relationships for early marriage couples. Participants were 176 persons who were family members or neighborhood of S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they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Finding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nflict-coping behavior of withdrawal type according to sex while differences in conflict-coping behavior of physical type and withdrawal type and depression according to age. Differences were found in conflict-coping behavior of language type and depression according to occup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according to couples' conversation time. Perceived their spouses cope with the confli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and depression, self-esteem appeared to represent an indirect effect.

Key Words : Recognition of conflict-coping behavior, Self-esteem, Depress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부관계는 다양한 인간관계 중 하나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는 부부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1]. 행복한 결혼생활은 부부 모두에게 자신감, 자존감, 전반적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우울과 공격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2].

특히, 결혼초기의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삼육보건대학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Jinah Lee

Tel: +82-10-4370-1357 e-mail: lja8584@shu.ac.kr

접수일 12년 01월 17일

수정일 (1차 12년 02월 13일, 2차 12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12년 03월 08일

을 가진 남녀가 결혼생활에 적응해 가는 시기로 생의 전환기 중 과도기적 과정이다. 이 시기는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크지만, 현실에서는 기대와 다른 모습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실망과 분노가 그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시기[3]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됨의 준비, 일과 가족의 조화, 재정계획, 친족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결혼생활의 갈등을 조절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4].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거나 바람직한 갈등대처 행동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가족해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5]

최근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보고에서 결혼 초기인 동거기간 0~4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부부의 2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초기의 부부갈등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다.

이혼은 개인에게 있어 심리적으로 위기의 사건이다. 이혼한 사람들의 심리적, 신체적 위험은 긴장, 우울[7], 흡연 및 알코올 사용의 증가와 암발생률이 증가[8]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혼에 따른 가정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건강한 결혼에 대한 낙관성이 감소하여 자신감 저하가 발생하고[9], 실직과 이혼 및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10],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장애 문제들을 야기한다[11].

결혼 후 나타나는 갈등은 우울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12,13],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절반 이상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12]. 특히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 우울한 배우자의 지각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14,15]. 우울한 남자와 여자는 결혼갈등 대처에도 더 공격적이다[16]. 부부의 갈등대처행동 중 일방적인 강제적 갈등대처 행동인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협력적인 갈등대처행동인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17].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자신의 갈등대처행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부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더욱이 인지적인 측면이 심리적인 부분과도 관련[14]되므로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부부들의 긍정적인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자존감은 결혼과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이며, 선행 연구들에서

자존감은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듭 보고되고 있다[18-22]. 종단적 연구에서 결혼한 부부의 자존감이 시간에 따라 감소됨[23]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자존감은 부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이혼통계보고와 결혼초기에 관한 선행연구[4,24,25]들을 기초로 하여 결혼 5년 이내의 부부들을 기준으로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해결 행동이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부부들의 부부관계증진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결혼 5년 이내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 행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며 자존감의 간접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 행동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 행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자존감의 간접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S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족이나 이웃들 중 결혼 5년 이내 기혼자 230명을 임의 표출하여 조사하였고, 190부의 회수된 자료 중에 분석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자료는 176부이다.

2.2 측정도구

2.2.1 갈등대처 행동

갈등대처 행동 척도는 Kerig[26]가 고안한 ‘갈등 및 문제해결 척도(Conflicts and Problem-Solving scales : CPS)’를 장춘미[27]가 번안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배우자에 대한 나의 갈등대처행동’과 ‘나에 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을 측정한다. 측정된 점수는 주관적 관점에서 부부 쌍방향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이 지각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이며, 협력형, 철회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하위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협력형의 갈등해결행동 문항들은 역으로 채점되었으므로, 이 척도에서 얻은 총점이 클수록 갈등해결방식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의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27]. 본 연구에서의 신체형은 신체적 공격행위를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 보고한 신뢰도는 .70에서 .87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84부터 .92 범위 안에 있다.

2.2.2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우리문화에 맞게 적합하도록 번안 수정, 김효순[28]이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도구이다. Likert식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85이었으며, 김효순[28]의 연구에서 .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2.3 우울

우울은 Beck 등(1961)이 개발하여 1996년 BDI-II로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BDI-II는 우울증상 정도 및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21개 문항의 4점 척도로써 본 연구에서는 현미열[29]이 사용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현미열[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서울에 있는 S대학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가족이나 이웃 중 해당 연구 대상자가 있을 시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결과의 활용도 등을 설명하였으며, 비밀보장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자유의지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연구대상자들은 설문지 앞장에 서명을 한 후 무기명으로 자기보고법에 의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 2부를 봉투에 넣어 배부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18.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주요 변인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분석하였으며, 설명을 위해 LSD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은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 VIF)로 판정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와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경로의 개별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45.5%, 여성은 54.5%였다. 연령은 평균 31.3세였고, 최소 25세부터 최대 36세까지의 범위 안에 있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판매직인 경우가 18.4%, 생산직은 3.4%, 사무직은 29.9%, 전업주부는 16.1%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은 32.2%였다. 하루 평균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은 53.4분으로 나타났다.

3.2 일반적 사항에 따른 갈등대처행동, 자존감, 우울 수준

표 1과 같이 일반적 사항에 따른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 자존감, 우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사항에 따른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을 살펴보면, 철회형은 연령($F=3.72,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1세 이상의 연령층이 30대보다 철회형이 많았다. 언어형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66, p<.01$). 즉, 판매, 서비스직이 사무직과 기타 직업보다 언어형이 높다고 지각하였다. 신체형은 성별($t=4.33, p<.001$)과 연령($F=7.4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가 신체형이 높다고 느꼈으며, 41세 이상이 26세부터 40세 이하보다 신체형이 높다고 지각하였다.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자존감을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F=3.11, p<.05$)은 자존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그 이상인 경우보다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 자존감, 우울수준

[Table 1] Spouses' conflict coping behaviors, self-esteem, and depression level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76)

		협력형		절회형		언어형		신체형		자존감		우울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	15.72 (5.71)	-1.15	21.55 (4.66)	.26	8.87 (2.72)	-1.76	7.17 (3.44)	4.33***	29.47 (4.47)	1.29	9.02 (6.71)	.38
	여	16.87 (7.23)		21.33 (5.98)		9.79 (3.91)		5.39 (1.88)		28.68 (3.57)		8.62 (7.05)	
연령	25세 미만	6.00 (.00)	2.00	20.00 (.00)	3.72** (⑤>③, ④)	8.00 (.00)	1.46	5.00 (.00)	7.47*** (⑤>②, ③,④)	30.00 (.00)	.85	7.00 (.00)	3.26* (⑤>② ③,④)
	26-30	17.46 (5.88)		23.28 (5.23)		10.00 (3.60)		6.00 (3.12)		29.32 (3.98)		8.67 (5.75)	
	31-35	15.60 (6.07)		19.91 (3.41)		8.56 (2.28)		5.69 (1.47)		29.56 (4.24)		7.43 (6.15)	
	36-40	15.46 (6.85)		20.00 (4.05)		9.20 (3.52)		5.00 (1.23)		29.13 (4.69)		6.93 (6.23)	
	41세 이상	17.00 (7.91)		22.42 (7.25)		9.94 (4.16)		8.21 (3.72)		28.05 (3.39)		12.00 (8.77)	
직업	판매, 서비스직	18.68 (7.27)	1.29	22.43 (5.63)	2.18	11.18 (3.64)	3.66** (①>③, ⑥)	7.18 (3.25)	1.83	28.18 (4.40)	1.48	13.00 (9.31)	3.88** (①>③, ⑤, ⑥)
	생산직, 단순 노동직	17.00 (7.94)		26.00 (5.44)		9.00 (1.54)		5.66 (1.03)		27.66 (2.06)		8.33 (1.86)	
	사무직	16.00 (5.72)		22.07 (4.88)		9.34 (2.78)		6.53 (2.74)		29.73 (4.08)		7.73 (5.28)	
	무직	16.57 (6.68)		20.64 (5.74)		9.71 (3.55)		5.71 (2.01)		28.00 (3.07)		7.35 (6.79)	
	전업주부	15.53 (6.51)		20.50 (5.14)		8.39 (3.61)		5.71 (3.07)		29.25 (3.91)		8.50 (6.15)	
	기타	16.47 (6.53)		21.54 (5.34)		9.42 (3.43)		6.22 (2.85)		28.94 (3.92)		8.90 (6.86)	
배우자와 대화 시간	30분 미만	14.94 (6.54)	1.93	20.23(6.49)	1.44	8.47 (3.95)	1.78	6.17 (3.62)	1.74	27.11(2.78)	3.11* (②, ③, ④) (⑤>①)	11.41(8.24)	4.43** (①,⑤ >②,③, ④)
	30분-1시간	17.30 (5.88)		22.25(5.30)		9.47 (3.19)		6.33 (2.94)		29.02(4.44)		8.36 (5.84)	
	1-2시간	14.76 (5.77)		21.23(4.64)		9.61 (3.32)		6.09 (2.04)		29.90(3.47)		6.42 (5.62)	
	2-3시간	17.37 (8.40)		19.75(5.25)		8.75 (3.29)		4.87 (.95)		30.25(3.75)		7.87 (5.89)	
	3시간 이상	18.83 (9.44)		22.83(4.87)		11.33(3.55)		7.66 (3.33)		30.00(4.93)		13.66(9.69)	

*p<.05, **p<.01, ***p<.001
*p<.05, **p<.01, ***p<.001

우울은 연령(F=3.26, p<.05), 직업(F=3.88, p<.01),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F=4.43,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41세 이상인 경우가 26세부터 40세까지의 연령층보다 우울이 높았으며, 직업은 판매, 서비스직이 사무직, 전업주부 및 기타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은 30분 미만이거나 3시간 이상인 경우가 30분에서 3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출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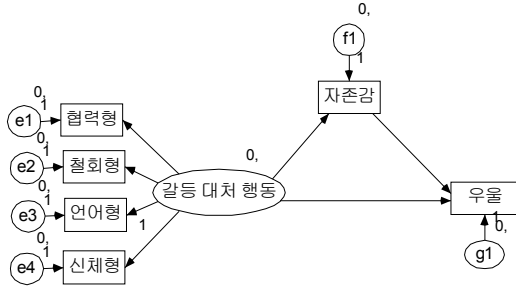
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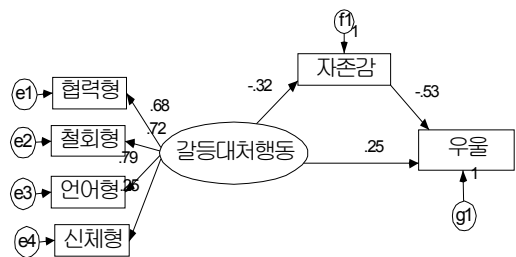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이 자존감과 우울과의 상호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과 자존감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변수들 간의 VIF 수준은 1.84부터 2.54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10이하의 점수가 나와 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었다.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 인지가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간의 모형 검증을 그림 1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표 2와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The research model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도 검증 결과
[Fig. 2] Result of path analysis of research model

표 2에서 살펴보면, $\chi^2=12.638$, $df=8$, $CFI=.983$, $GFI=.972$, $NFI=.958$, $RMSEA=.058$, $TLI=.956$,으로 적합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단위들에 대한 표준요인 부하량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유의한 인과관계가 추정되었다.

이는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이 높을수

록 자존감은 감소하고(-.32),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53). 따라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인지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자존감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17(= -.32 \times -.53)$ 이며, 직접적으로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효과는 .25이다. 이는 Sobel 검증 값이 1.96과 -1.96 범위 안에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과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권정혜[30]의 연구와 부부 갈등대처방법에 우울이 영향을 미친다는 조준배[3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초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이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결과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 중 신체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인지하는 아내의 신체형의 갈등대처행동이 여성이 인지하는 남편의 신체형의 갈등대처행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형의 갈등대처행동이 높다고 보고되어 왔으나[32, 33],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들이 느끼는 아내의 신체형의 갈등대처행동이 여성들이 느끼는 남편의 신체적 갈등대처행동보다 유의하게 높아 이전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선행연구는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5년 이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혼 초기 부부들의 역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다 더 신체적인 공격 행동을 한다고 남성들이 지각하고 있는 바 결혼초기 부부역동에서의 인지적

[표 2] 연구 모형 검증
[Table 2]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표준화계수	S.E	C.R
갈등대처행동 → 자존감	-.32***	.265***	-3.415***
갈등대처행동 → 우울	.25**	.373**	2.804**
자존감 → 우울	-.53***	.108***	-8.971***
측정모델 적합도	$\chi^2=12.638$, $df=8$, $p=.0023$, $CFI=.983$, $GFI=.972$, $NFI=.958$, $RMSEA=.058$, $TLI=.956$		

p<.01, *p<.001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령에 따라서는 신체형 및 철회형의 갈등대처행동이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34]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가 자신이 지각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형과 철회형의 갈등대처행동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으므로 부부들의 연령 및 결혼기간을 고려한 갈등대처방법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우울이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31]를 지지한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 언어형의 갈등대처행동과 우울이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직업의 특성 상 판매와 서비스직이 사무직이나 기타의 직업과 다르므로 직업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부부의 대화시간에 따라 자존감과 우울에 차이가 있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존감과 우울의 심리적 변인은 부부관계의 질과 연계된다는 선행연구들[30,31,35]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적절한 시간의 의사소통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존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우울의 차이는 자존감과 같은 매개요소에 따라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 개인의 삶에서 자신이 인지하는 배우자의 갈등대처행동과 자존감 및 우울은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가 자신이 인지하는 배우자의 갈등대처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인지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인지평가는 부정적인 피드백과 정서적 불확실성과 연관되어져 개인에게 낮은 자존감을 유발[36]할 수 있으므로 부부 교육과 프로그램에서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부부간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개입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므로 실질적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높은 자존감에 따라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가 감소하기 때문이다[37].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부의 갈등대처 행동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 부부의 감정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부부관계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상

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경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소통적인 관계를 증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결혼의 질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일회성 연구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추후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보다 다양한 기간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갈등대처행동과 연관된 다른 변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Olson, D.H., Larson, P.J., Olson-sigg, A., "Couple check-up: Turning up relationships",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Vol.8, pp.129-142, 2009.
- [2] Waite, L.J., Luo, Y., Lewin, A.C., "Marital happiness and marital stability: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cience Research*, Vol.38, NO 1, pp.201-12, 2009.
- [3] Yoo, Y.,J., Seo, D.,I., Hong, S.,J., Jun, Y.,J., Oh, Y.,J., Lee, I.,S., *Marriage and family*, Kyung-Hee university, 1998.
- [4] Lee, J.,S., "Subjective meanings of marital adjustment for 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5] Jung, J, K.,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s faith maturity and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ur,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2005.
- [6] Statistics Korea, 2010.
- [7] Shin-Hyun Jun, S., H.,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Divorce on Depression." *Social -Science*, Vol. 20, pp.5-27, 2007.
- [8] Hemminki, K., Chen, B., "Lifestyle and cancer", *Eur J Cancer Prev*, Vol. 15, No. 6 pp.524-530, 2006.
- [9] Whitton, S. W., Rhoades G.,K., Stanley, S.,M., Markman H. H.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commitment and confidence" *J Fam Psychol*, Vol. 22, No. 5, pp.789-793, 2008.
- [10] Huurre T., Junkkari H., Aro H. "Long-term psychosocial effect of parental divorce: a follow-up study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Vol. 256, No. 4, pp.256-263, 2006.
- [11] Stadelmann Stadelmann S., Perren S., Groeben M. & Klitzing K.T., "Parental seperation and children's

- behavioral / emotional problem : The impact of parental representation and family conflict" *Family Process*, Vol. 49, No. 1, pp.92-108, 2010.
- [12] Burns, D.,D., Sayers, S.,L., Moras, K., " Intimate relationship and Depression:is there a causal connection?, *J con clin psychol*, Vol 62, pp.1033-1043, 1994.
- [13] O'Leary, K.,D., Beach, S.R, "Marital therapy: a viable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marital discord", *Am J Psychiatry*, Vol 147, pp.178-186, 1990.
- [14] Lee, K.M., Choi,Y.,K., Kang, R.,H., Lee, M.,S.,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of married women-focused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coping metho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43, No.2, pp.229-236, 2004.
- [15] Hickey D., Carr A., Dooley B., Guerin S., Butler E.& Fitzpatrick L.(2007). Family and marital profiles of couples in which one partner has depression or anxie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2):171-182.
- [16] Coyne J.C., Thompson R. & Palmer S.C.(2002). Marital quality, coping with conflict, marital complaints, and affection in couples with a depressed w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1):26-37.
- [17] Greeff, A. P. & Bruyne, T. D. . "Conflict management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Vol. 26, pp.321-334, 2000.
- [18] Lee, E., J., "Self-esteem and active marita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1993.
- [19] Park, S., H.,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among the married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self-esteem,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2001.
- [20] Park, Y., W., "The Effect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4.
- [21] Mo, E.,W., Kim, J., W.,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Korean J Psychology*, Vol.14, No. 4, pp.887-900, 2002.
- [22] Mo, E., H., "The development of marit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coupl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2001.
- [23] Schafe, R. B. & Keith, P. M.. "Change in adult self-esteem: A longitudinal assessment ",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38, pp.303-314, 199.
- [24] Kim, Y., M, "The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improvement program on marital adjustment of couple in the early marriage st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1.
- [25] Lee, Y.,J.,&Jang, Y.,A., "A study on Marital conflict degree and conflict management method, conflict result perceived by the housewives in the city early marriage stag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7, No.1, pp.79-93, 2002.
- [26] Kerig, P.,K.,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he conflict and problem-solving sca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0, pp.454-473, 1996.
- [27] Chang, C.,M., "The effects of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ed on marital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2001.
- [28] Kim, H., S.,, "The influence of Religion, Parenting Behavior and Self-Esteem on Forgiveness in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29] Hyun, M., Y., "The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al program on problem-solving ability,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3.
- [30] Kwon, J., H., "Perceived criticis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4, pp697-712, 2000.
- [31] Cho, J., B., "A study on the effects of economic stressor on ways of dealing with problems among married couples.-focusing on self-esteem,life satisfaction and source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7, pp153-174, 2009.
- [32] Choi, H., K., Noh, C., Y., "The types of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s among korean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2, No.2, pp262-271, 1994.
- [33] Kang, L., Lee, J., A., "A study on conflict-resolution behavior and perceived conflict-resolution behavior of married couple under 10years". *Sungshin Journal of Health Science*, Vol. 3, No.1, 2011.
- [34] Kim, Y., H., " A study on family conflict od korean citiz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1986.
- [35] Kim, J.,R., Lee, E.,H., "The influence of middle aged their depression and the behavior problems in their children: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marital conflic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md Psychotherapy*, Vol.19, No.2, pp279-319, 2007.

- [36] Bouchard, G.,Guillemette, A., Landry-Leger, N,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coping : a examination of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cognitive appraisals, and psychological distr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18, pp221-238, 2004.
- [37] Lee-Flynn, S.,C., Pomaki, G., DeLongis, A., Biesanz, J.,C., Puterman, E, "Daily cognitive appraisals, daily affect, and long term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pf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in the stress proc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7, No.2, pp255-268, 2011.
-

강 리 리(Lily Kang)

[정회원]



- 2000년 2월 : 삼육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가톨릭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부부관계, 우울

이 진 아(Jinah Lee)

[정회원]



- 2000년 8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 보건사회복지과 부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장애인, 가족